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중장거리전략탄도 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 화성포병들이 새로 장비한 첨단로켓체계에 정통하고 기체를 잘 다룬다고 하시면서 이번 훈련을 통하여 로켓실전운영에서 좋은 경험을 쌓았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팜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태평양을 무표로 삼고 탄도로켓발사훈련을 많이 하여 전략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미국이 저들의 행태를 지켜볼것이라고 한 우리의 경고에 호전적인 침략전쟁연습으로 대답하였다고 준철리 말씀하시면서 오늘 전략군

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그 출개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얼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의 서막일다름이라고 언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극도로 침예한 정세를 완화할데 대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뻔뻔스럽게 높아대는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헤치는 안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것이 이번에 또 한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고 하시면서 이미 천명함과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행동을 결심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략군장병들이 준엄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화성포씨움준비를 더 한층 강화하며 강위력한 탄도로켓들을 임의의 순간에 발사할수 있도록 만단의 결전진입태세를 철저히 갖추으로써 미래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마음을 억제하고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체 장병들은 107년전 《한일합병》이라는 치욕스러운 조약이 공포된 퍼의 8월 29일에 잔악한 일본침략자속들이 기결초종할 대담한 작전을

펼치시고 수도권지역에서 탄도로켓을 발사하도록 승인하여주시어 우리 인민의 가슴에 쌓이고 쌓인 한을 풀어주시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명명만

내리면 반제반미대결전을 총결산하게 될 최후성전의 맨 앞장에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핵무장력으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사의 맹세를 다지

본사정치보도반

